chudosa.com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친지 여러분,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를 아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박영수, 우리 모두의 영수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그 삶을 기억하고 기립니다.

1941년 5월 1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신 할아버지는 격변의 시대를 묵묵히 건너오셨습니다.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치신 뒤 1960년대 서울로 올라오셔서 은행원으로 3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지만, 사실 그분이 지킨 것은 사람의 신뢰였습니다. 원칙을 흐리지 않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 그래서 함께 일하신 분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박 선배는 약속을 생명처럼 지켰다.”

퇴직 이후의 시간도 쉼이 아니라 또 다른 헌신이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교회와 함께 10년 넘게 봉사를 이어가시며 청소년 멘토링에 앞장서셨습니다. 공부가 막막한 아이에게는 조용히 방법을 알려 주고, 길을 잃은 마음에게는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글자 한 줄이 인생을 바꿀 때가 있다.” 그 말처럼, 서가를 정돈하는 그분의 손길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내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영수 할아버지는 더 없이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배우자 김순자 여사와 58년을 해로하셨고, 아들 박진호, 박민수, 딸 박은영, 그리고 손주 다섯을 두셨습니다. 가족을 대하실 때의

chudu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엄함과 따뜻함의 균형, 기준은 분명하되 사람을 먼저 보시는 눈. “정답을 외우기보다, 바르게 서라.” 할아버지의 말씀은 꾸중처럼 들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격려로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 설날 아침의 풍경이 선명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국을 끓이시며 “국물은 급하게 끓이면 맛이 없다” 하시던 목소리, 그리고 식탁 끝에서 붓을 들고 한지 위에 덕담을 써 주시던 모습. 먹을 만큼의 소금처럼 절제된 글씨, 그러나 문장마다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덕담 한 장을 방 책상 앞에 붙여 두면, 한 해를 조금 더 곧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낮고 단단한 웃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던 손길, 그리고 가끔 슬며시 건네시던 정성스런 손편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오래 그리워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서예와 바둑을 사랑하셨습니다. 붓끝이 머무는 숨, 돌 하나를 내려놓기 전의 침묵. 서예와 바둑은 그분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되 물러서지 않고, 과한 장식 대신 단정한 중심을 세우는 법. 작은 뜰을 가꾸실 때도, 한강을 걸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꽃이 피는 데는 계절이 필요하고, 강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분은 늘 조용히 알려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성실을 쌓는 삶. 책임 앞에서 핑계를 먼저 세우지 않는 태도. 겸손을 단정한 옷처럼 입고 사는 사람. 영수 할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났습니다. 출근길의 같은 시간, 같은 노트의 같은 글씨, 같은 인사. 그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안심을 배웠고, 우리 가족은 신뢰의 모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인 저에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스승이셨습니다. 예절을 곱게 가르치되 형식에만 머물지 않게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모사 작성

하셨습니다. “인사는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시험을 앞두고 초조했던 날에는 바둑판에 마주 앉아 두 수만 두자 하시더니, 결국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셨습니다. 정답을 주시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기다려 주시던 그 시간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할아버지가 바둑돌을 손에 굴리던 그 조용한 리듬을 떠올립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신호였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슬픔 속에 서 있습니다. 2026년 3월 29일, 향년 85세로 우리 곁을 떠나신 영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빈자리가 너무 또렷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기신 것은 빈자리만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등을 떠밀지 않고 어깨를 토닥여 주던 손길, 약속을 지키는 일이 결국 사람을 지킨다는 믿음, 그리고 손글씨 한 장으로도 하루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앞으로의 길을 비춰 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떡국을 끓일 것입니다. 숟가락이 닿는 소리 사이로, “국물은 급하게 끓이면 맛이 없다”는 목소리를 다시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첫 아침에 종이를 펴고, 서툰 붓끝으로라도 서로에게 덕담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약속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기다려 주며, 필요할 때는 먼저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아버지께 배운 삶의 모양이고, 그분을 닮아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여사님, 그리고 아버지 진호 삼촌, 민수 삼촌, 은영 이모, 손주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울되 서로 기대어 서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더 자주 잡고,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오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그러셨듯이요.

영수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성실과 책임, 겸손과 신뢰를 쌓아 올리신 당신의 삶이 우리에게 길이 되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그 웃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안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미소를 이어 가겠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툴더라도, 서로에게 따뜻한 글자 한 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신 강과 뜰, 글과 돌,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하겠지만, 그리움 속에서도 당신의 삶을 기쁘게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영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